

농촌마을에 주민자치 바람 분다

순천시, 2021년까지 모든 읍·면에 주민자치회 구성 해남군도 구축...공동체 회복 농촌활력 마중물 활용

농촌마을에도 주민자치 바람이 불고 있다. 순천시와 해남군이 내년까지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축,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성화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5일 순천시와 해남군 등에 따르면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이들 지자체는 주민자치의 토대가 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달 30일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280여명을 대상으로 '2020 주민자치위원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현재 8개 면·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해 2021년까지 24개 모든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순천시 주민자치 역사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자치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하는 취지였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두 소장은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관련단체 역할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마을과 마을,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주민조직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마을계획과 주민총회 우수사례 등을 소개했다.

순천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주민자치 성장을 위한 주민·공무원 등 각 주체별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을활동가를 양성해 읍·면·동 일선에 배치할 계획이다.

해남군도 내년까지 14개 모든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주민자치와 공동체 회복에 나선다는 목표다.

해남군은 2003년 황산면, 2018년 북평면에 이어 지난해 12월 화원면, 올해 1월20일 송지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했다.

지난달 27일 자치위원을 선정한 현산면 주민자치위도 이달 중 발족할 예정이며, 산이면·현산면·계곡면 주민자치위도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해남군은 주민자치위를 주민자치와 공동체 회복으로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마중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자치위에서 주민자치회로 질적 도약을 위해 '해남형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하고,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고령화된 농어촌 사회에서 주민자치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 및 활동은 지방분권시대의 선결 과제"라며 "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높여 군민들의 군정 참여를 넓혀 지역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명현관 군수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선제 대응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선제대응...예방 총력

해남군, 전체 군민에 마스크 지급

해남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로 모든 군민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5일 해남군에 따르면 명현관 군수는 지난 3일 긴급 간부회의를 통해 "농어촌지역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전체 군민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전 군민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한편 다중집합장소 등에 손세정제 등을 보급하기로 하고, 관련 물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역물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마스크 13만매와 손소독제 5000개를 구매해 읍·면과 실·과·소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배부하고, 외출시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관광지는 물론 개원을 맞은 어린이집·유치원과 버스터미널, 식당 및 목욕탕, 택시, 전지훈련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는 반드시 비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감염예방교육

을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예비비를 투입해 열화상감지카메라 6대를 추가 구매해 주민 이동이 빈번한 터미널과 우수영항 등에 설치하고 보호복·감염병 예방 홍보부스 물품 등도 추가 확보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남군은 앞서 지난 2일 명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 일일 상황보고, 부서별 대응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완도군, 최대 92% 지원 지난해 71억원 피해

지난해 71억여원의 풍수해 피해를 입은 완도군이 군민들에게 풍수해보험을 적극 가입할 것을 권했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풍수해 피해액은 202억581만원에 달했다. 이 중 완도가 35.5%인 71억7018만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어 보성 32억6675만원, 고흥 29억6711만원, 신안 16억2717만원, 장흥 13억167만원 등의 순이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대설, 강풍, 호우, 지진 등 풍수해로부터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 보험으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이 가입 대상이다.

보험료는 일반 52.5%,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86.2%, 소상공인 59%가 기본 지원된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국비 지원율이 당초 25%에서 50%로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다.

완도군은 지난해 태풍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점차 늘고 있다"며 "올해는 많은 군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피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2월 해양치유식품...완도 '광어'

비타민·콜라젠 성분 풍부

맛·영양도 만점

2월의 해양치유식품으로 광어가 선정됐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광어(사진)는 비타민 B12가 풍부해 빈혈 예방에 좋고 콜라젠 성분이 많아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라이신 함량이 높아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은 식품이어서 2월의 해양치유 식품으로 선정됐다.

광어는 가자미목 납치과에 속하는 어류다. 납치가 표준말이며 광어는 사투리였지만 광어라는 이름이 널리 불리면서 광어도 표준말로 인정됐다.

광어는 쫄깃하고 달짝지근해서 맛이 좋은 데다 대량 양식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횡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횡는 양식보다는 자연산이 맛있는데 광어의 경우는 양식과 자연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없다.

오히려 양식에서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자연산보다 양질의 사료를 먹는

양식 광어가 맛과 영양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이다.

완도에서 생산하는 광어는 9906t으로 전국 대비 28%를 차지하고 있다. 청정바다에서 자라고 맛도 좋아 '명품 광어'로 불리며 지역적으로 완도 광어가 으뜸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해조류 숲이 바다를 정화해 청정 해역을 유지하고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맥반석이 깔린 해저의 바닷물을 끌어 올려 양식하기 때문에 육질이 탄탄하고 향이 뛰어나다.

완도군 관계자는 "라이신 함량이 높아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다"며 "생선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광어 스테이크를 추천한다"고 권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지난달 31일 열린 청년 공동체 거점공간인 '진도군청년센터 개소식'에서 이동진 진도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청년 공동체 활성화 '청년센터' 개소

진도군이 최근 청년 공동체 활성화 거점 공간인 청년센터의 문을 열었다.

청년센터는 청년 취업과 창업,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 역량 강화는 물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2019년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선정돼 문을 연 청년센터는 향토문화회관을 재단장에 조성했다.

청년센터는 취업·창업 상담실과 온라인 청년센터, 청춘 동아리방, 다목적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췄다.

이 곳에서는 진도청년들을 대상으로 청

년 창업 스쿨, 일자리 컨설팅, 희망 청춘 아카데미, 멘토 수업, 팝업스토어, 작가 전시회,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며, 청춘 동아리방과 다목적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청년센터가 취업·창업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문화·창작 활동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